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은 대체 리스크 전가(ART) 확대를 위해 자산·부채의 법적 분리에 필요한 개별 법인 설립·운영 부담을 낮추는 PCC 제도를 제안함. PCC는 한 법인 안에서 셀별로 자산·부채를 분리하고 관리·감독 기능은 공유하는 구조로, 캡티브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업계는 이용 확대를 기대하나 실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효과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이후의 활용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함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7월 대체 리스크 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이하 'ART')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부채의 법적 분리에 필요한 개별 법인 설립·운영 부담을 낮추는 PCC(Protected Cell Company) 제도를 제안함¹⁾
 - MAS는 2025년 아시아 자연재해 경제손실 약 650억 달러 중 90% 이상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보험을 보완하고 기업의 위험관리 방안 확대를 위해 ART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 ART는 기업이 자가보험을 활용하거나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위험을 나누는 등 전통적인 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임
 - 싱가포르의 기존 제도에서는 위험관리 프로그램별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와 같은 별도 법인을 각각 설립해 자산·부채를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관리 부담이 ART 활용의 장벽으로 지적됨
 - 캡티브보험·보험연계증권(ILS) 등에서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특정 위험에 대비해 마련한 자산이 다른 사업이나 거래의 채무 상황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임
- PCC는 하나의 회사 안에 독립된 셀(Cell)을 두어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관리·감독 기능은 공유하는 구조로, 개별 법인을 세우는 대신 셀을 활용해 ART에 필요한 법인 설립·운영 부담을 낮추는 제도임
 - 셀은 사업부처럼 하나의 회사 안에서 구분해 운영하는 단위이지만, 단순한 조직 구분을 넘어 각 셀의 자산·부채를 다른 셀 및 중앙 관리부문(Core)의 자산·부채와는 법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A 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자산이 부족해도 B 셀의 자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도록 하여,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각 셀의 자산을 다른 셀의 채무 상황으로부터 보호함
 - 자가보험 운영이나 ILS 발행 거래는 셀별로 구분해 관리하되, 지배구조와 감독 등 공통 기능은 중앙 관리부문이 담당하므로, 자산·부채의 분리를 유지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통 비용을 여러 셀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음

1) MAS(2026. 7. 7.), "MAS Consults on Protected Cell Company Framework to Support Growth of Alternative Risk Transfer Solutions in Insurance"; Swiss Re Institute(2025), "Growing exposure and protection gaps in Asia"

〈표 1〉 개별 법인 방식과 PCC 제안의 비교

구분	기존 개별 법인 방식	PCC 제안
법인 구성	자산·부채를 분리할 대상별로 별도 법인 설립	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셀 구성
자산·부채 관리	개별 법인을 통해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분리	셀 간, 셀과 중앙 관리부문 간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분리
관리·감독	개별 법인마다 관련 업무 수행	셀별 관리와 중앙의 공동 관리·감독을 결합
비용 측면	개별 법인의 설립·운영 비용 부담	공동 운영구조를 활용해 법인 설립·관리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

자료: MAS(2026. 7. 7.), "MAS Consults on Protected Cell Company Framework to Support Growth of Alternative Risk Transfer Solutions in Insurance"

○ PCC 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은 캡티브보험, 보험연계증권(ILS), 국가 공동위험풀(Sovereign Risk Pool)이며, 이 중 캡티브보험과 ILS 분야에서 특히 성장이 기대된다는 업계 전망이 제시됨²⁾

- 캡티브보험에서는 전속보험회사를 직접 설립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기업도 전문 운영업체가 마련한 PCC의 셀을 이용할 수 있어, 별도 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시간·인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보험회사 설립·운영 비용 때문에 캡티브 활용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도 자사의 위험에 맞는 자가보험을 활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ILS 분야에서는 증권화할 보험계약 규모가 작아 별도의 특수목적재보험회사(Special Purpose Reinsurance Vehicle) 설립이 부담스러운 발행기관도 PCC의 셀을 이용할 수 있어, 발행비용과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거래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맞춤형 거래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가 자본 시장에서 추가 인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됨
- 국가 공동위험풀에서는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재해위험을 하나의 법인 안에서 구분하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 구조 마련 외에도 국가 간 위험분담에 관한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므로 캡티브보험이나 ILS와 달리 단기간에 뚜렷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임

○ PCC 제도는 기업, 보험회사, 국가의 다양한 위험관리 수요를 하나의 법인 구조로 수용하려는 접근으로, 업계는 이용 확대를 기대하나 실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효과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이후의 활용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함³⁾

- 업계는 위험에 대비한 자원 조달 수단이 확대되면 기업,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투자자 간 연계가 촉진되고, 아시아의 위험·자본관리 거점으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업계의 기대와 실제 성과는 구분해야 하며, 제도 시행 후에는 캡티브를 이용하는 기업과 소규모·맞춤형 ILS 거래의 증가 여부, 법인 설립·운영 비용의 절감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 확대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Asia Insurance Review(2026. 8.), "Singapore's alternative risk transfer market poised for notable growth with upcoming PCC framework"

3) Asia Insurance Review(2026. 7. 8.), "Singapore's upcoming Protected Cell framework will drive alternative risk transfer"